

# 추석씨름대회 유치한 영암군…공무원·주민은 ‘울상’

추석 연휴 포함, 6일간 휴일 반납 ‘불만 가득’

매번 대회때마다 인원동원 “힘들다” 하소연

광주·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속 씨름단을 운영하는 영암군 공무원들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울상이다.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10일부터 6일간 열리면서 추석연휴를 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절씨름대회는 전국적으로 관심도 높고 군 흥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2017년부터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대회 때마다 인원 동원에 휴일 반납으로 이어져 이미 녹초가 됐다고 하소연이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한 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는 전국에서 남자 18개 팀, 여자 6개 팀 등 모두 24개 팀에서 250명이 참가한다.

전국 18개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씨름단 가운데 단연 최고의 실력을 보여 온 영암군은 이번 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대회 흥행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가 열리는 동안 영암군은 실·과·소별로 군민 흥보에 참여하고 추석 연휴기간 돌아가면서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원 동원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

져나오고 있다.

올해 벌써 7번째 전국대회가 열리면서 군 직원들과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씨름 대회 응원단으로 동원돼 피로가 누적돼 왔다.

담당 부서인 흥보체육과는 매번 씨름대회 기간 경기장으로 모두 출근하고, 능번기에도 주요 공무원들이 농촌현장이 아닌 씨름 대회장에 대거 얼굴을 내미는 상황이다.

또한 읍·면 별로 이장과 사회단체회원 등 씨름대회에 나가야 하는 동원 대상자들도 농시일을 제쳐두고 행사장으로 차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49)는 “영암군이 씨름단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대회마다 인원을 할당해 참여를 요구하면서 불만이 많이지고 있다”면서 “군의 읍·면 문화체육 위원회가 씨름대회 ‘동원위원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놓고 ‘군정 흥보’와 ‘헬세 낭비’ 등 의견이 엇갈리면서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솔리고 있다.

2016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을 통해 민속 씨름단을 출범시킨 영암군은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씨름단 창단 당시 군의회와 집행부는 연간 군 부담금을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적극 유치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국비가 내년부터 아예 지원되지 않아 군비 부담은 15억 원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군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인원 동원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씨름단 해체를 주장하는



창단 2년만에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암군 민속씨름단.

주민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직원들과 주민들이 추석 연휴 경기장에 나오는 것은 다소 부담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적한 예선경기 때

시간을 할애해 경기장에 오시면 좋겠다”며 “추석대회는 어렵게 유치한 큰 대회인 만큼 전 직원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투혼 발휘’ 한국, 부상 악재 딛고 씨낸 값진 월드컵 1승

오는 21일 개막…‘프로+실업 3팀 격돌’

주축 선수 이탈 불구 25년만에 한국 농구 역사 장식



8일 중국 우체육관에서 열린 2019 FIBA 농구월드컵 순위결정전 대한민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에서 80-71로 승리를 거둔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연이은 부상 악재를 딛고 25년 만에 한국 농구 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했다.

한국은 8일 중국 광저우체육관

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17~32위 순위결정전 2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80-7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1994년 캐나다

대회 이집트와 순위결정전(89-81) 승리 이후 25년 만에 월드컵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대회 최종 성적은 1승 4패가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한국은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초청대회를 치른 뒤 곧 바로 열린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 순위결정전 1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를 포함하면 16일간 8경기를 치른 셈인데, 이 과정에서 엔트리에 든 12명의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날 코트디부아르전에선 주축인 이정현, 이대성, 김종규가 부상으로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김종규는 대회 전부터 허리와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정현과 이대성은 대회 개막 후 부상을 입었다. 이정현은 지난 6일 중국과 순위결정전, 이대성은 4일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발목에 다쳤다.

부상자는 더 있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정효근은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고 어깨를 다친 최준용은 경기에는 나섰지만 17분 1초 출전하며 무득점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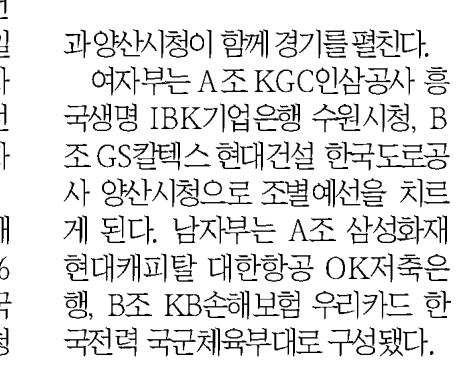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악재에도 1승을 거두겠다는 한국 선수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코트에 나선 선수들은 부상으로 빠진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서 최선을 다했다.

라건아가 26점 16리바운드로 더블더블 활약을 펼쳤고 박찬희가 14점 6어시스트, 허훈이 16점으로 힘을 보탰다. 특히 허훈은 3점슛 4방을 폭발하며 경기 초반 한국이 리드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전반까지 20점 차 리드를 잡은 한국은 4쿼터 막판 78-71까지 7점 차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다. 한국은 수비에 집중하며 점수 차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경기 종료 34초를 남기고 터진 허훈의 그림같은 쇄기 득점으로 승리를 지켰다.

투혼을 발휘한 한국은 1998년 그리스 대회 5전 전패, 2014년 스페인 대회 5전 전패 그리고 이번 대회 4연패까지 이어지던 월드컵 14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 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과양산시청이 함께 경기를 펼친다.

여자부는 A조 KGC인삼공사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수원시청, B조 GS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양산시청으로 조별예선을 치르게 된다. 남자부는 A조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OK저축은행, B조 KB손해보험 우리카드 한국전력 국군체육부대로 구성됐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이→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탑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